

(2023. 1. 6.)



산업동향 Vol. 109

양재완

산업분석실

선임연구원

CES 2023, 다시 모빌리티의 장으로

KATECH Insight

- ◆ 세계적인 전자·IT 기술 전시회인 CES 2023이 코로나-19 이전 규모를 회복하며 개최되었으며, 금년에도 전동화, 자율주행, 차량 SW, 인포테인먼트 등이 집결한 모빌리티 분야가 전면에 부각
- ◆ 많은 참여 기업들이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여전히 모빌리티 관련 이슈에 천착하고 있으나, 경기 둔화 가능성에 맞서 보다 실용적인 방식으로 접근한 것이 특징적

■ 글로벌 최대 기술 전시회인 CES의 금년 행사에서도 모빌리티 분야가 전면에 부각

- CES(Consumer Electronics Show) 2023이 1/5~1/8 사이 美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며, 삼성, LG 등 국내 550여개 기업을 포함한 글로벌 173개국 3,000여개 기업이 참여
*지난 2년 간 CES는 코로나-19로 취소·축소 운영되었으나 올해는 규모를 키우며 약 10만 명 참관 예상
- CES 2023는 일반 가전, 메타버스, NFT, 헬스케어, 로봇틱스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나, 올해도 전동화, 자율주행, 차량 SW, 인포테인먼트 등이 집결한 모빌리티 분야가 전면에 부각

■ 주요 완성차 기업들은 각사 전략에 기반하여 양산이 임박한 신차와 신기술을 소개

- (폭스바겐) 공격적인 전동화 전략을 펼치는 VW는 그간 부재했던 세단형 전기차 컨셉 모델 'ID.7'를 공개하고, 아우디는 차량 내 VR 게임이 가능한 VR 인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전시
- (벤츠) 최근 사용자 인터페이스·경험(UI/UX) 분야에서 새로운 프리미엄을 추구해온 벤츠는 최신 ADAS 기술과 함께 ZYNC*사와 공동 개발한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공개
* ZYNC: `19년 美 샌프란시스코에서 설립된 차량용 UI/UX 인포테인먼트 업체로 포르쉐와도 협업 중
- (BMW) 완전히 새로운 전기·전자 아키텍처 및 개선된 구동 시스템, 생산 비용 절감을 표방하는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인 'Neue Klasse'와 이를 적용한 새로운 전기차 컨셉카 공개
- (스텔란티스) 그룹 산하 피아트는 인터랙티브 쇼룸 '피아트 메타버스 스토어'를, 미국 인기 브랜드 램(Ram)은 STLA Frame 전동화 플랫폼 기반의 신형 픽업트럭 전기차 컨셉카 등을 소개
- (소니혼다모빌리티) 일본 소니와 혼다가 합작한 전기차 프로젝트 기업으로 레벨3급의 자율주행 시스템과 게임 콘솔 '플레이스테이션5'가 탑재된 전기차 프로토타입 공개
* Afeela라고 명명된 이 모델은 양산이 확정되었으며 `25년 예약, `26년 고객 인도 예정

■ 주요 부품 기업들은 전동화·인포테인먼트 등 현실적인 기회에 주목하며 신제품 공개

- (모비스·HL만도) 모비스는 신기술을 융합한 목적 기반 모빌리티(PBV) 컨셉카를, HL 만도는 by-wire 기술 기반으로 제동, 조향, 현가, 구동이 통합된 '일렉트릭 코너 모듈' 전시

- (보쉬) 인포테인먼트와 ADAS 기능이 통합된 차세대 차량제어 도메인 컴퓨터, 자율주행 레벨4 수준의 장거리 라이다와 전기차용 전기 구동 장치 e-Axle 시스템 전시
 - (콘티넨탈) 자율주행 기능 강화를 위해 AI 기술이 적용된 시스템 온칩과 고성능 라이다를 공개하고, 1.2m 길이의 곡선형 울트라 와이드 디스플레이도 제시
 - (SK온) 현재 양산 중이며 초고속 충전이 가능한 SF(Super Fast) 배터리, NCM9* 등 배터리 3종을 전시하고, 미국 'Solid Power'와 공동 개발 중인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을 공개
- * SF 배터리는 니켈 비중 83% 배터리로 아이오닉5·EV6에, NCM9은 니켈 비중 90% 배터리로 포드 F-150에 탑재

▣ 빅테크들은 전동화 트렌드에 걸맞은 SW 기술 및 자사 노하우의 서비스화 방안을 제시







- (구글) 차량 운영체제 '안드로이드 오토'를 체험할 수 있도록 차량 2대를 배치하여 음성 인식으로 차량 제어하고 구동할 수 있도록 진행
- (마이크로소프트) AR/MR/메타버스의 자동차 산업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는 한편 IoT 기술로 전기차 배터리 효율을 높이는 차량 SW 등을 소개하며 모빌리티 산업 영향력 확대
- (아마존) 'Amazon for automotive'라는 이름으로 모빌리티 기술 및 서비스 전용 전시관을 선보이고, AWS의 데이터 분석, 처리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 강화 기술 소개
- (엔비디아) 클라우드 기반 게이밍 서비스인 Geforce Now의 적용 대상을 자동차로 확대하고, 향후 현대차그룹, BYD, 폴스타 등의 완성차 기업들이 해당 기능을 탑재할 것임을 홍보

▣ 많은 기업들이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여전히 모빌리티 이슈에 천착하고 있으나, 경기 둔화에 맞서 보다 실용적인 방식으로 접근

- CES 2023에는 완성차 기업을 포함한 대형 부품사, 빅테크, 스타트업 등이 참여하였으며 지난 수년간의 트렌드와 유사하게 상당수의 기업이 모빌리티 관련 사업 비전을 제시
- 그러나 세계적인 경기 둔화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대다수 기업은 실질적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한 사업 분야에 집중하고, CES의 마케팅 효과를 레버리징(leveraging)하려는 모습
 - 이전 CES가 완전 자율주행 등 장기 기술 목표에 기반한 다양한 비전 제시의 장이었다면 CES 2023은 단기적으로 적용 가능한 차량 관련 신기능 및 전동화 기술 등이 주류 형성
 - 행사 주최 측은 CES가 완성차 기업의 양산 모델 발표회로 변질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으나 많은 기업들이 사실상 양산형에 가까운 컨셉카를 공개하며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는 모습
- 모빌리티 기술 변혁기를 맞아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해 IT·SW 기업과 완성차 기업 간에 구체적인 협력 사례가 제시된 것도 특징적
 - 특히 소니혼다모빌리티는 미래차 부품 및 서비스 수요에 주목하는 IT 기업과, 차량용 SW·고객 경험 차별화의 중요성을 절감하는 레저시 완성차 기업의 현 상황을 단적으로 예시

Ⅰ 기업별 주요 전시 내용 (출처: 각 언론사 및 기업 홈페이지) Ⅰ

구분	기업	서비스 내용	관련 사진
완성차기업	폭스 바겐	ID.7: 최대 700km(WLTP) 주행이 가능한 신형 전기차 'ID.7' 프로토타입 공개	
	아우디	VR 인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: 차량 내에서 VR 게임 가능	
	벤츠	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: ZYNC와 협업하여 개발한 실시간 차량 데이터 기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공개 ADAS 시스템: EQS에 적용된 레벨3 ADAS 기술 소개	
	BMW	차세대 전기차 플랫폼: 전기차 플랫폼 'Neue Klasse'와 이를 탑재한 컨셉카 i Vision Dee 공개	
	스텔란티스	피아트 메타버스 스토어: 메타버스를 이용한 인터랙티브 쇼룸 전기차 및 컨셉카 공개: 전동화 플랫폼 STLA Frame 이 적용된 800km 주행이 가능한 전기트럭 컨셉카 '램 1500 레볼루션 BEV', 차세대 UX '푸조 I-Cockpit'이 적용된 '푸조 인셉션' 컨셉카, '닷지 차저 데이토나 SRT BEV' 컨셉카 등	
	소니 모빌리티	전기차 모델: 레벨3급의 자율주행시스템과 게임 콘솔 'PS5'가 탑재된 '25년 출시 예정인 전기차 모델 Afeela' 공개	
	폴스타	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: 스웨덴 시기업 '스마트 아이'와 공동 개발한 운전자의 졸음, 주의 산만 등 상태를 실시간 추적·감지	
부품기업	모비스	엠비전TO: 전동화 시스템 기반 PBV 자율주행 차량으로 ADAS 센서와 e-코너 모듈, MR(혼합현실), 디스플레이 등이 탑재 엠비전HE: 레저와 휴식, 아웃도어용 PBV 차량으로 차유리를 대형 디스플레이로 활용화 영화 감상이나 인터넷 쇼핑이 가능	
	HL만도	일렉트릭 코너 모듈: 조향과 제동을 전자식으로 제어하는 by-wire 시스템 기반으로 브레이크, 스티어링, 서스펜션과 구동 모터가 통합된 전동 시스템인 '일렉트릭 코너 모듈' 전시	

구분	기업	서비스 내용	관련 사진
부 품 기 업	LG 이노텍	자율주행용 전장 부품: 운전보조시스템(ADAS)용 카메라 모듈, 차량 실내용 카메라 및 레이더모듈, 센서 퓨전 솔루션 등 전기차용 부품: 직류 간(DC-DC) 컨버터, 충전용 통신 컨트롤러 등	
	LG 디스플레이	P-OLED 차량용 디스플레이: 플라스틱 기판을 활용하여 가볍고 구부릴 수 있는 디스플레이 무안경 3D 계기판: 안경없이 3D를 구현한 계기판 차량용 사운드 솔루션: 독자 개발한 필름 형태 익사이터가 디스플레이 패널 또는 내장재를 진동판 삼아 소리를 내는 방식	
	보쉬	차세대 차량제어 인포메이션 도메인 컴퓨터: 차량 시스템 관리를 위한 E/E 아키텍처로 인포테인먼트, 주차지원, 서라운드 뷰 등 ADAS 기능 통합 시스템	
	콘티넨탈	ADAS 칩: 반도체 기업 암바렐라의 AI 기능이 적용된 ADAS 칩으로 빠르고 전력 소비량이 낮은 솔루션 제공 고성능 라이다: 에이아이와 공동 개발한 고성능 라이다 출품(자동차 300m, 보행자 200m 이상 거리 인식 가능) 곡선형 울트라 와이드 디스플레이: 1.2m 이상 아치형 디스플레이	
배 터 리	SK온	SF 배터리: 니켈 83% 하이니켈 배터리로 18분만에 80% 충전 NCM9: 니켈 90% 하이니켈 배터리로 주행거리가 높은 장점 S-PACK: Cell-To-Pack 기술을 적용하여 배터리 모듈수를 최소화하고, 주행거리는 늘고 제조 비용도 절감 가능	
IT	구글	안드로이드 오토 구현: 차량 운영체제 '안드로이드 오토'를 체험할 수 있도록 차량 2대를 배치하여 음성 인식으로 차량 제어하고 구동할 수 있도록 진행	
	마이크로소프트	차량 SW: IoT 기술로 전기차 배터리 효율을 높이는 차량 SW 소개	
	아마존	Amazon for automotive: 모빌리티 기술 및 서비스 전용 전시관을 선보이고, AWS의 데이터 분석, 처리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 강화 기술 소개	
스 타 트 업	Aska	eVTOL: 美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Aska가 개발 중인 UAM 전시	